

10 디스플레이 제조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성별	여성	나이	37세	직종	디스플레이 제조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는 1997년 7월 15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오퍼레이터로서 근무하였다. 2003년 2월 15일 퇴사 이후 2014년 잦은 복통을 호소하다 동년 4월 7일 개인병원 진료도중 혈액수치 이상으로 대학병원으로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경구 항암제 복용하면서 추적조사 중이다. 현재의 질병발생이 업무관련성이 있다하여 2014년 10월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월 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97년 7월 15일 입사하였으며 2003년 2월 15일 퇴사 시까지 총 5년 5개월 동안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동료근로자는 교대근무가 4조 3교대, 4개의 교대조(1개조 5명) 총 20명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2시간 맞교대 혹은 3조 3교대가 4조 3교대로 변경된 시점은 파악할 수 없으나 200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자료상에 근로형태는 3조 3교대로 기술되어 있으며, 대부분 휴일 근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벤젠 및 복합유기화합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파악된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0.0228 ppm·yr 수준이고 전리방사선은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추정된다.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1997년 7월 15일 입사하여 오퍼레이터로서 근무하였다. 2003년 2월 15일 퇴사이후 2014년 잦은 복통을 호소하다 동년 4월 7일 개인병원 진료도중 혈액수치 이상으로 대학병원으로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현재 항암 치료 유지 중이다. 상병진단 이전 특이 질환력은 없었으며, 조혈기계 악성질환을 포함한 악성신생물의 가족력 또한 없었다.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1997년 입사하여 약 6년동안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벤젠과의 관련성이 일부 보고되고 있다. 근로자가 약 6년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리방사선의 노출가능성은 자연 방사선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과거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0.0228 ppm·yrs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끝.